



24일 오후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계 - 자유한국당 정책간담회'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안윤수기자 ays77@

홍준표 “서민경제 살리려면 건설경제 살려야”

한국당, 건설업계 간담회서 강조
함진규 정책위원장도 SOC 확대 약속

“서민경제를 살리려면 건설경제가 살아야 합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4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대한민국 경제가 살려면 건설경제가 살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당에서 홍 대표를 비롯해 함진규 정책위원회 의장, 김종석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전희경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건설업계에선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과 김영운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심광일 대한주택건설협회장, 김정중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박승준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김형렬 한

국주택협회 상근부회장, 성창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영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대한건설협회 등 22개 건설관련 단체가 지난 16일 ‘공사비 정상화 탄원 및 전국 건설인 대국민 호소대회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비 정상화 탄원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성사됐다.

홍 대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아예 지방 SOC(사회기반시설) 공사 발주를 안 하고 있다”면서 “관급공사 발주가 전국적으로 저조하고 낙찰률도 나빠지면서 건설업계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홍 대표는 “(경제를 살리려면)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도시뿐 아니라 전국 SOC 사업도 활발해져야 한다”며 “무분별하게 퍼주는 복지예산을 SOC 예산으로 돌려, 제대로 된 정책으로 서민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홍 대표에 이어 정책위의장과 공동선대

위원장도 건설산업 지원을 약속했다.

함 의장은 “이번 주경에서 SOC 예산을 800억원 넘게 늘렸다”면서 “앞으로도 SOC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SOC 투자는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복지제도”라며 “탄력근로시간제 활성화, 공사비 삭감 개선 등 건설업계 경영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화답했다.

유주현 건협 회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온 중추산업인 건설산업이 그에 상응하는 대접을 못받고 있다”며 “공공공사저가발주, SOC 예산 지속 축소, 규제 일변도 주택정책 등으로 건설업체가 힘들어하는 만큼 어려움을 경청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건설업계 참석자들은 △공공공사비 정상화 △내년 SOC 예산 확대 △근로시간 단축 충격 완화 △주택시장 규제 일변도 정책 지양 △표준건축비 정상화 등을 주문했다. 김태형기자 kth@

최문순 강원도지사 '3선 도전' 공식화... 공약 들여다봤더니

'강릉~제진' 철도 복원 중점 추진

남북협력, 북방경제시대 국제교류 증진위한 필수사업으로 총력 지원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도 마련

3선 도전에 나서는 최문순 강원도지사 예비후보가 동해선 '강릉~제진' 구간 철도 복원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24일 강원도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문순 후보는 최근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회장과 만나 '강원도 주요 신규 및 노후 인프라 사업'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최 후보는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 건설 사업을 일반공약으로 이행하기로 결정했다. 도 건설업계 관계자는 "일반공약이란 도 추진 공약 가운데 핵심순위로 지정해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판단된다"며 "선거운동 과정에서 동해선 완공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최 후보는 23일 강원도 강릉에서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강릉역은 머지않아 원산을 거쳐 함흥을 지나 블라디보스토크를 넘어 모스크바를 건너 파리에 도착하는 유라시아 철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강원도는 북방으로, 대륙으로 가는 전진기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 연장 104.6km의 강릉~제진 구간은 부산에서부터 북한 안변까지 연결되는 동해선 철도 중 유일한 미연결 구간에 속한다.

미연결 구간인 강릉~제진 104.6km 구간만 연결되면 북측 철도 800km와 시베리아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회장(왼쪽 세 번째)과 최문순 강원도지사 후보(왼쪽 네 번째)가 지난 17일 강원도청 통상상담실에서 만나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건설강원도회

횡단철도(TSR) 9297km의 연결 통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단 현재 2조349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탓에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 2016년 6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고도 2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다. 이에 최 후보는 이 사업을 남북교류와 북방경제시대 국제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필수 사업으로 추진해 조기 복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최 후보는 동해선 복원 사업과 다른 인프라 구축 등 대규모 프로젝트 과정에서 도 건설업체가 소외받는 현실을 반영해 지역업체 참여도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금융집행이 완료된 강릉안인화력 발전소 건설사업도 사실상 주사업자인 삼성물산의 협력업체(전문건설사)가 대부분의 하도급 공사를 수주할 것으로 알려져 도 건설업계는 지역사업이 발주되고도 외면받는 형국이다.

도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 후보는 지역

의 대형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실행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며 "강원도 산하 지자체를 중심으로 도 건설업체에도 물량이 배분될 수 있도록 특별조례 발의와 관련된 사항까지 다각도로 검토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6일 칸타코리아가 강원민방 G1 의뢰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지사 후보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최문순 46.9%, 자유한국당 정창수 13.6% 순으로 집계됐다. 임성엽기자 starleaf@